

01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1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1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

일산한방병원의 인증 획득은 환자안전과 시설 등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2015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4년 동안 인증의료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일산한방병원은 인증획득을 위해 1년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했다. 우선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한 한약재 관리와 감염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질 향상 등을 위해 교직원 전체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해왔다. 그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일산한방병원은 앞으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환우들이 더욱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기관인증이란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게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자격을 부여한다. 일산한방병원 인증조사는 60개 기준, 241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02 2015년 경영목표 달성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15년 상반기 부서장 워크숍 및 미래전략위원회 착수보고회' 열어

동국대학교병원은 3월 6일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1층 대강당에서 2015년 상반기 부서장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이진호 의료원장 등 기관장과 중간관리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2015년 경영목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 경영 실행에 중점을 두어 진행했다.

본원은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로 앞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난 2월 미래전략위원회를 발족했고, 4개의 분과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본원의 미래성장동력과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진호 의료원장은 "전 교직원이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 핵심역량을 발휘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고객 감동을 창출하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03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BTN 불교TV로 부터 감사패수상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3월 7일 코엑스 오디코리움에서 열린 BTN 불교TV 20주년 개국쇼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BTN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시:베품'의 프로그램에 공헌한 점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BTN 20주년 기념식에서 수상하게 되었다.

04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정기총회 성황리에 마쳐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12일 5층 대강당에서 14년 사업과 15년 사업계획을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15년도 연우회를 이끌어 갈 임원으로 신임 회장 구병수 교수와 수석부회장 권범선 교수, 부회장 김광기 교수, 노태훈 팀장(유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구병수 교수는 "2005년 창립되어 10년을 맞이한 연우회는 초창기 보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10년에는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연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우회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우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정기법회 19회 △초초특별법회 3회 △성지순례(국내 2회, 해외 1회) △봉사활동 17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봉사활동은 연우회 회원 약 530여 명이 참여하여 활동 범위를 매년 넓혀가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방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05 직원식과 환자식에 대한 급식만족도조사 시행

영양팀은 환자식과 직원식에 대한 급식만족도조사를 3일과 5일 각각 실시하고, 결과를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12일 게시했다.

직원식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단순통계처리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 점수인 75.5점보다 높은 76.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SPSS방법으로 처리한 환자식은 79.5점으로 2014년 4분기 80.0점보다 0.5점 하락하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2주~3주 동안 입원해 있는 환자그룹이 타 그룹에 비해 배식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분기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영양팀은 환자식과 직원식에 대하여 분(반)기별로 '음식의 온도, 맛과 간, 위생, 배식원의 친절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급식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완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3월 친절 간호사

정신건강의학과 박은경 간호사



일반병동에서 121병동으로 이동 후 선임간호사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래에서 협조 안 되는 공격성 있는 중환이 입원한다는 연락이 왔고,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어 많이 당황되었습니다. 마침 수선생님도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경험이 많은 박은경 선생님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종양학과 고은미 간호사



수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바쁜 외래 업무 중에서도 한분 한분 밝은 목소리와 활기 넘치는 표정으로 응대하고, 병동에서 외래로 문의전화를 하면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줍니다.

동계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소감문 당선작

장려상 이다연 학생

겨울방학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동국대병원 학생자원봉사활동 공지를 보게 되었고, 예전에 병원에서 봉사해 본 경험을 살려 신청하였다. 첫날 병원 중강당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병동을 배정받아 61병동으로 올라갔다.

5일 동안 병동에서 일하시는 여사님과 함께 활동을 하였다. 입원병동에서는 처음 해보는 봉사고 첫날은 모르는 것도 많아서 여사님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계속 봉사하면서 익숙해졌고 여사님이 칭찬도 해주셔서 참 뿌듯했다.

특히 환자분들의 자리를 정리해드렸을 때 환자분께서 감사하다고 말해 주셨는데 그순간 작지만 남을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병동에서 쉬는 시간을 가질 때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병원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더 노력하고 준비해서 저 분들과 같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큰 봉사도 있지만 내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귀한 봉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남을 도와주기 위해 갔지만 오히려 내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올 수 있는 알찬 경험이었다.

알 리 미

TV 방송

프로그램 : EBS 명의 | 일시 : 3월 20일(금) 21:50 | 출연 : 신경과 김동익 교수 | 주제 : 뇌졸중

'연꽃사진 전시회'

일시 : 3월 16일(월)~3월 28일(토) | 장소 : 1층 전시장